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

같지도 않고 그다지 다르지도 않은

최영호 _영산대학교 일어학과

『일본비평』 제8호는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를 특집으로 하여 편집되었다. 오늘날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보수 우경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심지어 한국 언론에 비친 일본의 모습은 과거 전체주의로 회귀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회에서 우경화 움직임과 무관하게 사회 저변에 다양성을 띠고 있는 모습이냐 때로는 우경화 움직임에 거스르는 모습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사라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경화 경향에 추종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다 더 자주 부각되고 있고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을 따름이다. 『일본비평』 편집자들은 이 점에 착안하여 일본 사회의 다양성을 한국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번 호에 전문가들의 논문을 통해 일본의 마이너리티 집단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기로 했다.

지난 해 연말 한국과 일본에서 정권의 성격을 선택하는 중대한 선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치러졌다. 선거는 백성들의 의사가 정치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정치수단(과정)인 만큼 모든 언론매체가 선거와 관련된 소식들을 쏟아냈다. 그런데 대다수 언론매체들은 이번에도 백성의 의사가 어떻게 표출되는가 하는 과정보다는 권력 장악에 초점을 맞추어 누

가 당선될 것인가, 혹은 어느 정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인가에 지나치게 쏠려서 소식을 전달했다.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나 득표 수에 따라 선거활동 보조금이 제도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언론매체가 일부 지명도 낮은 후보들을 유권자들에게 내보일 기회를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사회적 마이너리티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와 민주통합당 후보의 박빙 승부에 지나치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다 보니 기호 4번부터 7번까지의 무소속 후보들은 거의 포스터로만 자신들을 홍보해야 했고 그야말로 일반 대중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채 마이너리티 후보로서 투표일을 맞이해야 했다. 기호 4번 박종선 후보는 1928년생으로 이번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고, 신고 재산도 42억 7324만 원으로 모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았다. 그는 선거 공약으로 독특하게 인성교육의 강화, 한자 사용의 일상화, 북한과의 교류 완전 중단 등을 내걸었다. 기호 5번 김소연 후보는 전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으로서 비정규직 권익옹호 투쟁에 많은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노동자 대통령 등을 내걸고 후보에 등록했다. 기호 6번 강지원 후보는 변호사로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상임대표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마이너리티 후보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홍익자본주의, 전 국토 경제 활성화 동시 추진, 초당적 화합정치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마지막 기호 7번 김순자 후보는 울산과학대학 청소노동자 노조 지부장으로서 민주노총 간부를 역임했다. 그녀는 노동시간 단축, 기본소득 도입, 불안정 노동 철폐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각 지방에서 다양한 정당의 지역구 후보 유세가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비하면 민심의 ‘쏠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민주당 정

권으로부터 자민당의 정권 탈환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변동에 지나치게 언론이 집중되다 보니 마이너리티 무소속 후보들의 목소리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과 그리 다를 바 없다. 이런 가운데 개표 결과 전체 의석 480석을 자민당(294), 민주(57), 일본유신(54), 공명(31), 여러분(18), 미래(9), 공산(8)에 이어 무소속(5) 순으로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사민(2), 대지(1), 국민신당(1)에서도 당선자를 냈다. 그런데 이번 중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59.3%로 전후 가장 낮은 것이었고, 소선거구 후보의 투표에서 사표(死票)가 차지하는 비율이 56.0%로 2009년 선거의 46.3%보다 높게 나왔다. 또한 자민당이 소선거구에서 237석을 확보하여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비례구의 득표율에서는 27.6%를 얻는 데 그쳐 지난 2009년 민주당에 참패했을 때의 26.7%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비례구 투표수에서는 이번에 자민당이 1662만 표를 차지하여 2009년의 1881만 표보다 오히려 적었다. 이러한 득표 결과만을 본다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번 중의원 선거의 무소속 마이너리티 후보 두 명을 예로 들어보자. 사이타마(埼玉) 제4구에 출마한 오가사와라 히로키(小笠原洋輝). 그는 28세의 청년으로 대표적인 직함으로는 ‘무직’을, 약력으로는 무직과 고등학교 중퇴를 기재함으로써 일본의 청년실업 현실을 상징하는 후보가 되었다. 개표 결과 같은 지역구에서 자민당 후보 도요타 마유코(豊田真由子)가 7만 61표(35.9%)를 얻어 당선된 것에 비하여 그는 3617표(1.8%)를 얻는 데 그쳤다. 또 한 사람 사이타마 제12구에 출마한 가와시마 료키치(川島良吉)도 94세 최고령 후보로 특이한 경우였다. 자신의 장례비용 저금을 털어 ‘일본 재무장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 출마한 것으로 한국의 언론에 비교적 널리 소개되었다. 개표 결과 같은 지역구에서 자민당 후보 노나카 아쓰시(野中厚)가 6만 5989표(32.0%)를 얻어 당선된 것에 비하여 그는 2169표(1.1%)를 얻는 데 그쳤다.



좌) 오가사와라 히로키
우) 가와시마 료키치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를 언급하기 전에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 관한 언급이 약간 길어졌다. 중의원 선거가 일본 사회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번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마이너리티 문제와 관련한 움직임 하나만을 부연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중의원 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마쓰야마(松山) 시에서 성적(性的) 마이너리티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 ‘레인보우 프라이드 에히메(Rainbow Pride 愛媛)’가 각 정당에게 앙케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민, 민주, 공명, 국민신당, 공산, 사민, 일본유신 등 7개 정당이 회답을 보냈다. 이때 “성적 소수자 문제를 인권문제로서 대처해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민주, 공명, 공산, 사민, 일본유신 정당은 각각 “인권문제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자민당은 “인권문제로서 대처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했고, 국민신당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책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 공명, 공산, 사민, 일본유신 정당은 각각 “사회의 이해가 부족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계발과 시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자민당과 국민신당은 “성 동일성 장애자에 대한 시책은 필요하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시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¹

¹ <http://rainbowpride-ehime.org>

마이너리티란

과연 마이너리티란 무엇인가. *The Free Dictionary*에 따르면 마이너리티는 단순히 전체를 구성하는 집단 가운데 수적으로 적은 집단, 또는 수와 관계없이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집단을 뜻한다. 나아가 인종, 종교, 정치, 국적 등으로 어느 거대 집단과는 다른 것으로 여겨지는 집단, 또는 어느 사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권력이 적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집단을 뜻하기도 한다.² 이러한 정의는 과거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 인구가 많은 토착민이 인구가 적은 통치자로부터 억압을 받았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이너리티를 반드시 수적인 열세로만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권한의 열세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에서 나온 것이다.³ 이처럼 정해진 집단 범주 안에서 적은 규모나 적은 권한을 가지는 하위 그룹을 마이너리티로 보는 견해는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반드시 수적인 열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이 특집의 기획단계에서도 특집 주제로서 ‘소수자 집단’이라는 용어 대신에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는 데 편집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마이너리티 집단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다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차별이나 종속을 당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신체적인 특징이나 문화적 특징이 지배적인 집단과 다르다는 점, 셋째는 집단적 정체성과 공통된 곤란을 지니고 있다는 점, 넷째는 그 집단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에 관한 어떤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는 집단 내 통혼(通婚)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⁴ 민족성, 언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특정 종교, 나이, 신체적 장애 등의 공통된 특징에 따라 각각의

2 <http://www.thefreedictionary.com/minority>

3 Gad Barzilai, *Communities and Law Identities: Politics and cultures of Legal Identiti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4 Joe R. Feagin, *Racial and Ethnic Relations*, Prentice-Hall, 1984.



마이너리티 집단이 존재하게 된다. 이들 특징 가운데 대부분의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민족적 특징과 언어적 특징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마이너리티를 말할 때 민족적(ethnic)·언어적(linguistic) 마이너리티, 즉 ‘소수민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적으로 마이너리티의 존재를 알리고 마이너리티의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1960년대에 발족되어 오늘날까지 런던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국제소수민족권리기구(MRGI: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를 꼽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국제적 민간기구인 MRGI에서는 오늘날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수민족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60여 개 국가로부터 130명가량의 운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 훈련, 권익보호 소송, 출판 및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하여 소수민족과 원주민에게 교육과 직업의 균등한 기회와 공공생활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거주지와 언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⁵

MRGI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관심 대상인 마이너리티가 과연 누군가에 관하여, “인구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이면서 민족, 국적, 종교, 언어, 문화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집단, 나아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집단”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5 <http://www.minorityrights.org>

MRGI는 소수민족과 원주민에 한정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단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일을 주된 조직적인 임무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MRGI는 1년 예산 220만 파운드(약 13억 원)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30명의 전속 멤버들이 효과적으로 조직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비교적 양호한 평판을 얻고 있다.⁶

마이너리티 집단의 존재를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MRGI의 활동으로는 온라인과 유럽의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들 수 있다. MRGI가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개발한 프로그램 〈Minority Voices Newsroom〉을 통해 소수민족과 원주민의 목소리와 영상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활동이다. 오늘날 〈Newsroom〉은 기자들의 인터뷰 내용과 영상스토리, 보도기사, 새로운 관련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주로 소수민족 문제에 관하여 취재하고 보도한 내용을 이곳에 올리게 하여 유럽의 매체들이 이를 공유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⁷

이와 함께 MRGI는 영어와 프랑스어에 의한 다양한 출판 활동을 통해 소수민족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 이 단체는 발족 이래 자체적으로 출판사를 운영하며 단행본과 보고서 등 수백 종의 출판물을 생산하고 있다. 일찍이 1974년에 출간된 보고서에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조지 드 보스(George De Vos) 교수와 이 대학 석사과정생이던 윌리엄 웨더럴(William Wetherall) 연구자가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 문제로서 부락민과 재일조선인 그리고 아이누를 사례로 하여 소개한 바 있다.⁸ 1978년에는 당시 MRGI 이사회의 내부 구성원이던 클레어 팰리(Claire Palley) 교수

6 Claire Thomas, "Evaluation at Minority Rights Group",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Vol. 1 No. 3,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7 <http://www.minorityvoices.org>

8 George De Vos & William O. Wetherall, *Japan's Minorities: Burakumin, Koreans and Ainu*(Minority Rights Group, Report No. 3), Minority Rights Group, 1974. 드 보스와 윌리엄 웨더럴은 1981년 재일조선인 문제에 관한 단행본 집필과 편집 작업에도 참여했다. Changsoo Lee & George De Vos, *Koreans in Japan: Ethnic Conflict and Accommod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가 단행본 『헌법과 마이너리티』를 출판했다.⁹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단행본 출판 작업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 활기를 띠면서 매년 2~3권씩 출판해 오고 있다.¹⁰ 또한 MRGI는 2001년부터 많게는 1년에 6권 정도의 보고서 자료를 생산해 내고 있고,¹¹ 2005년부터는 세계의 마이너리티에 관한 백서(보고서)를 매년 한 권씩 편찬해 오고 있다.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

본문에서 신기영 교수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이너리티는 결코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한다면 비교적 판별이 쉬운 국적을 가지고 일본의 마이너리티를 논하는 것은 매우 조야한 결론에 빠지기 쉽다.¹² 일본 국적자 사이의 심각한 마이너리티 문제가 많기도 하거니와 비록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이너리티 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집단 내부에는 수많은 차원의 마이너리티가 존재한다. 결국 마이너리티 문제는 지하의 땅굴과 같

9 Claire Palley, *Constitutional Law and Minorities*, Minority Rights Group, 1978.

10 2012년에는 케냐의 마이너리티에 관한 단행본이 두 권 출판되었다. Korir Sing'Oei Abraham, *Kenya at 50: Unrealized Rights of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Minority Rights Group, 2012; Laura A. Young, *Challenges at the Intersection of Gender and Ethnic Identity in Kenya*, Minority Rights Group, 2012.

11 2012년에는 총 3권의 보고서가 출판되었는데, 폴란드 개발협력정책, 이라크 소수민족의 안전강화 실태, 마이너리티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Kordian Kochanowicz, *Country Strategy Papers: A Policy Tool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Polish Development Cooperation*, Minority Rights Group, 2012; Chris Chapman, *Improving Security for Minorities in Iraq*, Minority Rights Group, 2012; Corinne Lewis,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Rights of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Minority Rights Group, 2012.

12 만약 재일외국인을 마이너리티로 '거칠게' 간주하여 통계화할 경우, 2011년 10월 1일 현재 일본의 총 인구 1억 2800만 명 가운데, 2010년 말 외국 국적자가 총 213만 415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여 마이너리티 인구 비율이 1.7%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인구로는 중국 국적자 33만 5575명, 한국·조선인 56만 5989명, 브라질인 23만 552명, 필리핀인 21만 181명 순으로 많다.

이 계속 파들어간다고 해도 계속 나타나며, 또한 벗겨도 벗겨도 계속 나타나는 양과 껍질과 같아서 중국에는 어느 개인의 차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번 호에서 다루어지는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 사례 역시 어디까지나 일부 샘플에 불과하며, 그것도 지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연구자들의 눈에 포착된 집단 현상일 뿐이다.

일본 사회에는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민족성 차이로 인한 마이너리티가 존재한다. 일본의 위키피디아 사전은 오늘날 일본 사회에는 조선인, 중국인, 대만인 이외에도 아이누(Ainu), 율타(Uilta), 니브흐(Nivkh), 류큐인(Ryukyuan),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의 이주민 후손(Caucasian Descendants), 백계 러시아인(White Russian), 타타르인(Tatar), 연합국군 사생아(GI Baby), 인도차이나 난민 등의 마이너리티가 존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¹³ 지난 1966년 유엔총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을 채택하여 체결국에게 민족적 마이너리티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규약 제27조에 문화, 종교, 언어에 의한 마이너리티의 권리와 그들의 언어 사용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유엔은 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뒤늦게 1978년에야 이 규약에 서명했다(한국은 더 늦게 1990년). 일본 정부는 이 규약의 채택 이후, 이 규약에 해당하는 일본의 민족적 마이너리티로는 아이누 민족밖에 없다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¹⁴

필자는 전후에 들어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연구서 혹은 보고서로 에드워드 와그너(Edward W. Wagner)의 『일본의

13 <http://ja.wikipedia.org/wiki/日本の民族問題>

14 手島武雅, 「自由権規約第27条とアイヌ民族」, 『部落解放研究』 第119号, 1997. 12; Fisher Stevens & Georgina Chapman, 『国際人権規約と先住民族: アイヌ民族と自由権規約を中心に』,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006.

조선인 마이너리티』¹⁵를 들고 싶다. 그는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 민간 요원으로서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모아 1949년에 재일조선인에 관한 통사를 작성하여 하버드대학 학부 졸업논문으로 제출했고, 1951년에 졸업논문을 보완하여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은 재일조선인 집단의 역사에 관하여 1904년부터 1937년까지의 집단 형성 시기, 1937년부터 1945년까지의 전쟁 시기,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귀환 시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의 주요 집단 활동을 소개했다. 다만 이 책이 출간되는 시기에는 대다수의 재일조선인들이 자신들을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일본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마이너리티 문제에 관한 관심이 희박했다. 이러한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혹은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와그너는 서구인의 시각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재일조선인 집단을 마이너리티로 간주한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일본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에 관한 연구물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무엇보다도 일본 사회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가운데 대중들의 관심이 다양해진 토양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다가 일본 정부는 대외적인 진출을 위해 국제사회의 마이너리티 인권 보호 움직임을 수용해야 했고, 일본인과 민족성을 달리 하는 재일조선인 등 ‘이민족’ 집단은 내부의 세대교체와 함께 정주(定住) 경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차별의 현실을 고발하고 일본 사회와의 공생 공존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다문화 공생을 지향하는 사회단체가 무수히 생겨나 각종 활동을 펼쳤고 이와 관련한 연구들도 범람하듯 쏟아졌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대체로 민족성의 차이에 기반을 둔 집단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마이클 위너(Michael Weiner)가 1997년과 2009년에

15 Edward W. Wagner,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1904~1950*,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1.

편집 발간한 『일본의 마이너리티』 단행본 초판과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연구동향이 잘 나타나 있다.¹⁶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2010년에 연구총서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를 출간한 바 있다. 본 『일본비평』 특집기획과 비교해 보면 제목은 다르지만 소제목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책이다. 이 책에서 7명의 집필진은 다문화 상황을 정체성을 둘러싼 정치 현상으로 보고, ‘다문화’와 ‘정체성 정치’를 키워드로 하여 오늘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일본 사회를 묘사하고자 시도했다. 이 책은 일본 사회의 주변부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마이너리티의) 목소리가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 정체성에 덧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본 특집기획이 태어나게 하는 산모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본 특집기획이 연구총서와 다른 점을 내세우자면 마이너리티의 요소를 민족성에서 그 외연으로 확장하고자 시도했다는 점과 몇몇 연구자들이 현장 참여를 통하여 보다 가까이에서 마이너리티 집단의 움직임을 포착하고자 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사회 주변의 목소리

이번 『일본비평』 제8호 편집자들은 특집을 기획하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연구자들을 섭외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이제까지의 일본 마이너리티 연구를 정리하고 심층화하자는 것이었다. 둘째는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 소수자 집단에 관한 최근 동향을 소개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셋째는 마이너리티 집단의 피동성과 차별받는 현

16 Michael Weiner, *Japan's Minorities: The Illusion of Homogeneity*, London: Routledge, 1997; Michael Weiner, *Japan's Minorities: the Illusion of Homogeneity* (Second edition), London: Routledge, 2009.

실을 언급하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집단 활동을 통하여 능동성을 찾아내자는 것이었다. 섭외와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특집 주제와 관련하여 5편의 특집논문과 1편의 특집시론, 그리고 1편의 특별기고를 신게 되었다. 우리는 마이너리티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가능한 탈피하고 다양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하여 일본 사회의 하부 변화를 포착하고자 했다. 따라서 ‘자이니치(在日)’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문제제기보다는 특수한 조건을 가진 자이니치를 소개하고자 했다. 우리는 결코 이 책 한 권을 통하여 일본의 마이너리티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데 분명히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볼 따름이다.

신기영 논문은 마이너리티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고 마이너리티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이론화 작업을 담당했다. 저자는 한 사회에서의 마이너리티는 결코 자명한 개념이 아니고, 사회의 역사와 정치적 조건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마이너리티는 본질적 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다수집단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마이너리티 집단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화 작업으로서 정치철학자 매리온 영(Marion Young)의 사회집단과 구조적 억압문제 논의,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의 복합차별론을 각각 거론하고, 이들 논의의 결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각으로서 1980년대 흑인 페미니즘에서 유래한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권향숙 논문은 일본 사회의 보이지 않는 소수집단으로서 중국 조선족 커뮤니티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족의 일본 이주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수입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선족 커뮤니티의 형성과 확대 과정에는 국가와 기업의 일정한 역할이 있다고 하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2001년과 2005년에 실

시한 일본의 조선족 커뮤니티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선족 스스로 다문화 다언어 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중층적인 문화적 정체성과 다중언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오늘날 일본 조선족의 단체활동으로 저자는 ‘엔벤대학일본교우회’ ‘조선족연구학회’ ‘세계한인무역협회지바지회’ ‘조선족축구협회’ ‘조선족여성회’, 그리고 7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족 사이트 ‘쉽터(www.shimto.com)’와 기타 소규모 네트워크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양인실 논문은 일본의 제주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제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작품과 영상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일본의 제주인에 관한 최근 연구 가운데 오키나와인과 제주인을 관련시키는 연구, 고령화되어 가는 제주인 1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생활사적으로 접근하려는 학제적 연구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오키나와와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국민국가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위치하여 각각 독자적 문화와 왕국을 형성해 왔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과 이주가 중앙권력이 미치지 않는 경로를 통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연구결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현대에 들어서까지 이들의 삶이 국적이냐 민족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견해까지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일본의 드라마가 제주인 2세의 생활사에 관하여 오늘날 일본의 미얀마인들과 같이 ‘밀항’과 ‘불법체류’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불안정하게 영위되어 왔음을 덮어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12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일본 중앙정부 중심의 재류관리 제도를 비판하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려고 하는 정책적 의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무암의 논문은 중국잔류 일본인이 문화적·사회적 조건이 고려되지 않고 일본으로 귀국함으로써 발생하는 ‘중국에서 온 귀국자’의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방문조사와 함께 집단적으로 귀국해 온 ‘잔류고아’, 1990년대부터 단체활동을 통해 귀국 촉진과 자립지원 움직

임을 불러일으킨 ‘잔류부인’, 그리고 이들의 가족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이들이 일본 사회 대다수의 동정 속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중국 귀국자’라는 특수한 여건과 복합적인 아이덴티티 속에서 일본 사회 적응에 실패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온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자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실태조사와 교류 활동에 참여한 체험을 통해 이들의 고립이 치유되고 있는 이른바 사회통합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저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서 특히 일중우호센터의 일본어 및 생활상담 지원활동, 홋카이도센터의 다양한 일본어 교육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박규태의 논문은 신화론적 분석방법을 통해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장편소설 『1Q84』를 현대의 마이너리티 신화로서 해석하는 한편, 1995년에 발생한 옴진리교 사건을 전후한 ‘옴문제’에 적용시켜 일본 사회 시스템과 마이너리티와의 길항관계를 극적으로 논하고 있다. 하루키의 작품세계에는 수호자 역을 맡은 주인공들이 사악한 자의 침입을 물리치는 서사구조가 많이 등장하는데, 『1Q84』의 경우에도 여주인공 아오마메와 남주인공 덴고는 마이너리티의 대변자로서 두 개의 달이 떠 있는 ‘1Q84년’이라는 신화적 무대에서 리틀피플로 대변되는 사악한 시스템에 대항하여 투쟁한다. 현실적으로 옴진리교 사건은 극단적인 투쟁 방식으로 일본 사회의 시스템에 존재하는 맹점들, 예컨대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할 뿐 ‘왜?’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맹목적 성실함을 강요하고 있는 문제, 상투적인 것과 범속적인 것이 언어, 행동, 사유를 지배하는 문제를 노출시켰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지형의 특집시론은 일본에서 출판된 동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트랜스젠더의 실태에 관한 저술과 문학작품을 통해 일본 사회의 ‘성적 마이너리티’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애초 이 특집을 기획할 때 이 문제를 특집논문의 하나로 다루고자 했지만 저자가 극구 ‘옛보기’에 불과하다고 고사함에 따라 특집시론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저자는 일본

에서 LGBT로 통칭되고 있는 ‘성적 마이너리티’가 결코 같지 않으며, 심지어 상호 비대칭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상적인’ 주류 사회로부터 감수해야만 하는 ‘차별·혐오·소외·배제·기피·무시’의 양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들은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 데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성적 마이너리티’ 역사와 관련하여 저자는 1990년대 초부터 일본 사회에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중시하는 가운데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점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일본의 ‘성적 마이너리티’ 인구가 최소 274만 명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성적 마이너리티’의 능동성을 나타내는 사례로서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이 여타 마이너리티와의 연대를 통하여 지방의회에 진출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이인자의 특별기고는 연구조사를 통해 알고 지내던 한국인 부인 시노다 마키(篠田真紀)와 오시마 하루코(大島春子)가 2011년 3월 이후 일본 동북지방에서 재해지 복구를 위해 활동해 온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마이너리티의 능동적인 활동이 돋보이는 기록이다. 이시노마키(石巻) 시 교외에 살고 있는 시노다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쓰나미로 잃고 임신한 몸으로 어린 아이 3명을 데리고 이시노마키 시 시내의 피난소에서 생활하고 있던 동포 여성을 돕는 일로부터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으로의 피난 욕구를 억누르고 공익단체의 지원금을 받아 피해자의 장보기 업무 대행과 재해지 순찰을 담당하고 한국 화장품 회사의 지원을 받아 마사지 무료 시술을 행하면서 주민들과 긴밀하게 접촉했다. 또한 쓰루오카(鶴岡) 시 시내에 거주하는 오시마는 과거의 은인에 대해 목숨을 걸고 원조에 나선 것을 계기로, 주로 김치 만들기와 판매 사업에 관한 재할 특강을 통해 재해지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저자는 이들의 지원 활동을 통해 재해로 인하여 급격하게 발생된 국지적인 이문화 속에서 새로운 주민의식이 창출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재해지 민족지(Ethnography)’ 연구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소 교훈적이고 긍정적인 희망을 담아 특집기획의 목적을 논하자면, 마이너리티 사례에 관한 우리의 기획논단을 통해 일본 사회와 일본의 마이너리티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 영역이 보다 넓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일본의 마이너리티 현상을 거울로 삼고 사회적인 차별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사회에서도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이나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아니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많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존재가 알려지고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본비평』 제8호는 마이너리티 특집 이외에도 연구논단에 3편의 일반논문이 투고되었다. 먼저 에노키 가즈에(榎一江)의 논문은 일본 사회에서 남성 정규 노동자 위주의 고용관행과 젠더와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저자는 최근에 일부 기업이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전반에 걸쳐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바와 같이 여성이 가정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식이 쉽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보며 앞으로도 쉽게 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어 정진성의 논문은 1961년 산탄지역 진흥 임시조치법 제정 이후부터 1971년 제3차 산탄지역 진흥계획이 마련되는 10년 동안 산탄지역에 대한 대책의 성격이 애초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정책으로 변화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저자는 그 변화의 배경과 요인을 1960년대 고도성장과 산탄지역 사이의 격차 발생에 따른 국토 균형발전 요구와 노동력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정비의 요구 등에서 찾고 있으며, 성격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기업 유치와 산업개발 중심적 시각에서 지역주민을 주체로 하는 개발정책에 이르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 김범수의 논문은 오사카상업대학 비교지역연구소가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한 사회조사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외국인 증가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내용과 그

요인을 고찰하고 있다. 사회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전체적으로 외국인과의 혼인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별적인 일상생활에서는 외국인 유입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자는 사회조사에 임하는 일본인의 연령, 정치의식, 생활정도, 지역에 대한 애착정도, 외국인 대면기회와 영어회화 능력 등이 외국인 증가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